

파인텍 (131760.KQ)

신주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하락은 매수 기회

유상증자로 신주 250만주 신규 상장. 신주 물량의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기회로 판단. Rigid 라인을 공용장비로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를 받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부품 역시 저가폰에 공급되며 2017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

희석 가능한 주식수를 감안해도 PER 6.9배에 불과

금일 1월 25일 유상증자 신주배정분 250만주가 신규 상장.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5,490원이었으며 유상증자 이후 상장주식수는 720만주에서 970만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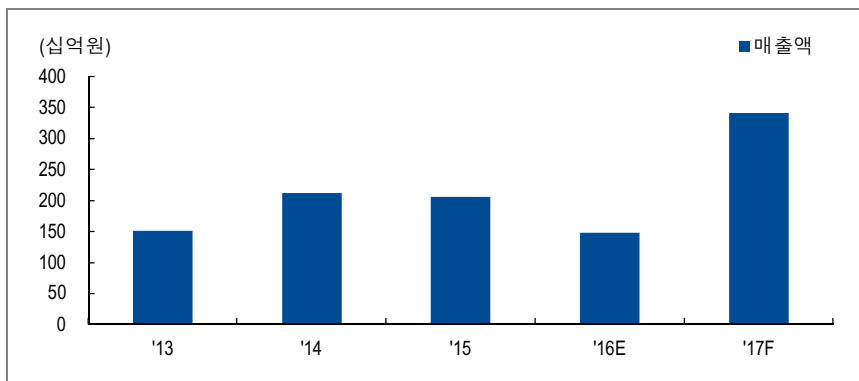
동사가 조달한 자금은 차입금을 줄이는데 적용. 현재 상장주식수의 30% 정도가 신주 상장. 차익실현으로 인한 물량이 출회될 수 있으나 유상증자와 8월부터 행사 가능한 BW를 감안하여도 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6.9배에 불과. 신주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

2017년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이상 없이 실적 성장 중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부분은 2016년 약 950억원 수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50억원 정도가 2017년 매출액으로 이월되었음. 동사는 Rigid와 Flexible 혼용장비를 유일하게 개발한 업체로 고객사의 Rigid라인을 Flexible 공용라인으로 전환하는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수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BLU(Back Light Unit), LCM(LCD Module) 터치키 사업을 하는 디스플레이 부품 사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2017년에 출시된 고객사의 저가폰에 LCD가 적용됨으로써 BLU 매출액은 2016년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LCM 사업은 신규 고객사를 확보. 디스플레이 부품 2017년 매출액은 1,660억원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파인텍 매출액 추이: 2017년 매출 급성장



자료: 파인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Not Rated

현재가 ('17/01/24)	10,650원
업종	IT부품
KOSPI / KOSDAQ	2,065.76 / 612.93
시가총액(보통주)	76.7십억원
발행주식수(보통주)	9.7백만주
52주 최고가('17/01/20)	10,750원
최저가('16/06/24)	4,587원
평균거래대금(60일)	3,528백만원
배당수익률(2016E)	0.00%
외국인지분율	0.4%
주요주주	
강원일 외 2인	24.0%
주가상승률	3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수익률 (%)	60.8 90.8 64.2
상대수익률 (%)p	69.9 120.2 79.8

	2014	2015	2016E	2017F
매출액	210.8	205.4	147.8	341.4
증감률	39.8	-2.6	-28.1	131.0
영업이익	9.3	11.4	-5.3	27.0
영업이익률	4.4	5.6	-3.6	7.9
(지배지분)순이익	5.8	3.0	-8.1	20.0
EPS	1,496	607	-1,176	1,548
증감률	17.6	-58.0	적전	흑전
PER	0.0	11.9	N/A	6.9
PBR	0.0	1.0	1.7	1.8
EVEBITDA	2.7	4.0	1,164.5	2.9
ROE	34.4	8.9	-18.4	30.8
부채비율	454.2	122.8	189.2	93.3
순차입금	39.0	20.1	42.7	15.2

단위: 십억원, %, 원, 배
 주1) EPS, PER, PBR, ROE는 지배지분 기준
 주2) 2017년 BW 행사 가정,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 증가 감안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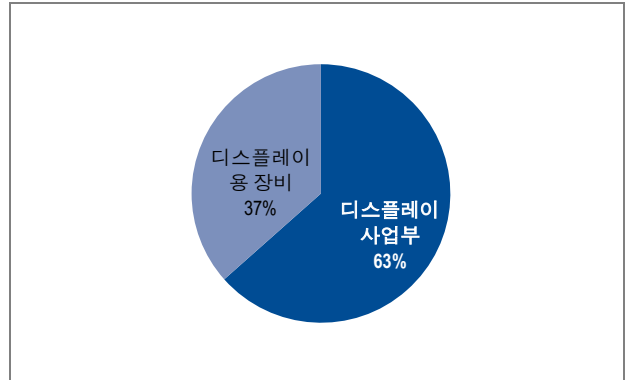
Analyst 손세훈
 02)768-7971, midas.sohn@nhq.com

기업개요

- 파인텍은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업체. BLU와 LCD모듈, TSP(터치스크린패널) 모듈을 생산. 주요 고객사로는 BLU의 경우 삼성전자, 디스플레이테크, BOE가 있으며 LCD모듈의 경우, 디스플레이테크, TSP모듈의 경우 일진디스플레이에 공급
- 동사의 BLU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타깃. 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용으로 공급. BLU 업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로는 이라이콤과 파인텍이 메인 업체로 활동. 동사는 AMOLED 디스플레이 칩투올 상승으로 BLU 사업이 부진하자 아이템 다변화를 시도. 터치스크린에 적용되는 터치키를 개발하여 삼성전자의 세탁기, 오븐 등으로 공급 중
- 지난 8월 3일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세광테크를 총 232억원에 인수. 이후 11월 14일 세광테크 합병 결정을 하였으며 130억원의 자금조달을 진행하였음

제품 및 매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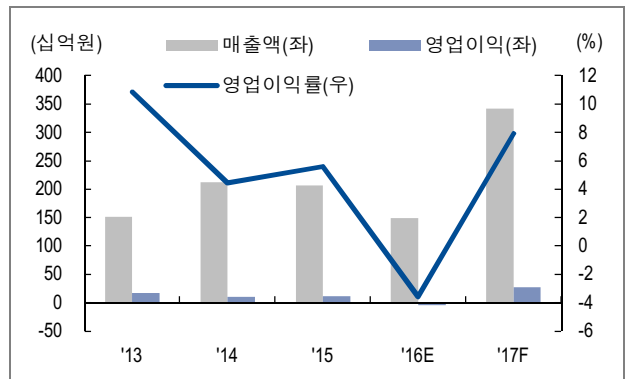
- 3분기 누적 기준 디스플레이 사업부 매출은 415억원. 3분기까지 BLU(Back Light Unit)의 매출 335억원, LCD Module 21억원, Touch Screen Panel은 47억원 매출 기록
- 2016년 8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세광테크 지분 87.75% 인수. 인수 이후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은 239억원 기록
- 인수 이후 3분기 디스플레이 장비 중 INLINE 장비 매출이 205억원, FPCB 부착 장비 매출 12억원, Panel 전극 검사 장비인 ATT 매출이 2억원 수준



주: 디스플레이 장비는 합병 법인 취득 이후 매출액
자료: 파인텍 (2016년 3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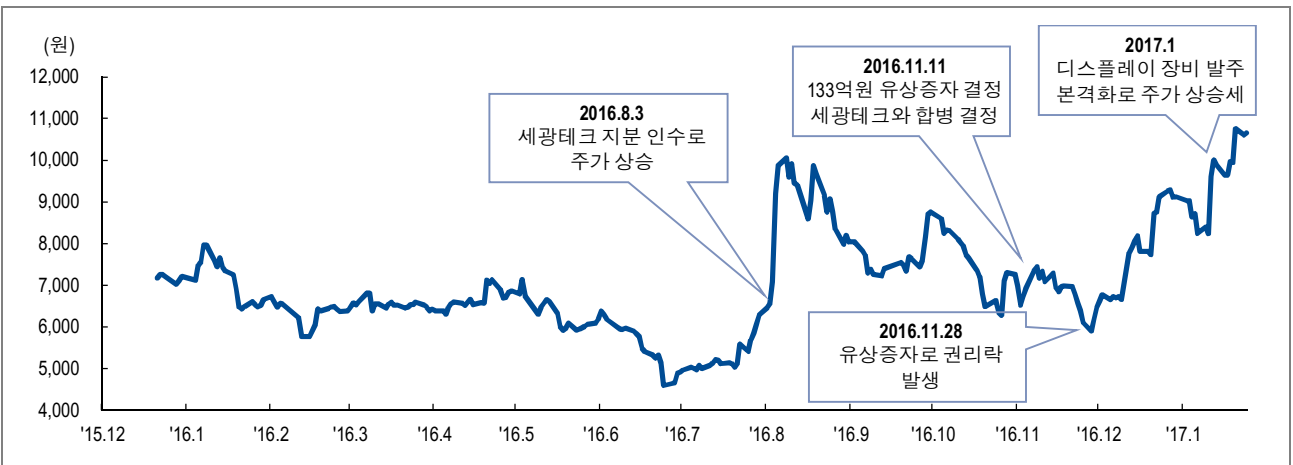
영업 실적 추이

- 2016년 3분기 기준, BLU 매출은 전년동기 77%, TSP모듈 매출은 65% 감소. 다만 LCD모듈 매출은 15% 증가하였음
- BLU 업황 부진으로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세광테크 인수를 통한 제품 다변화 시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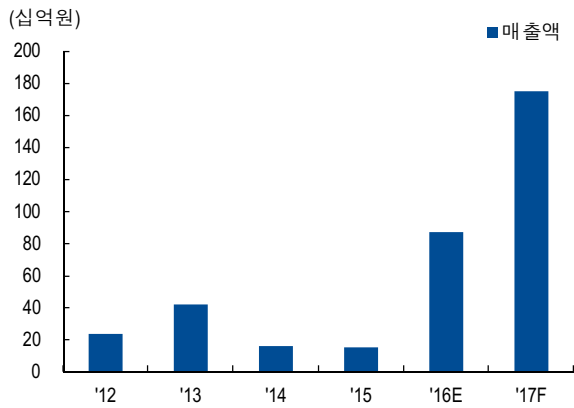
자료: 파인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과거 주가 추이 및 주요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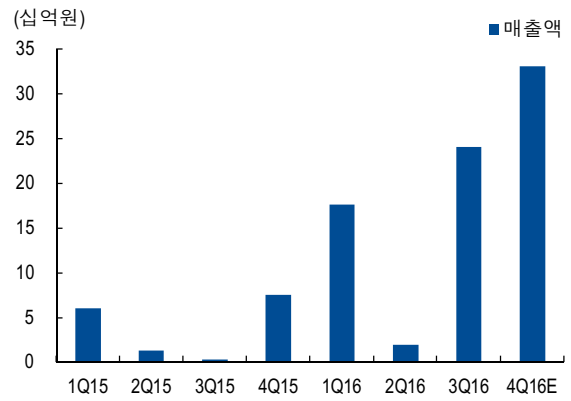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Bonding장비 발주 증가로 디스플레이 장비 2017년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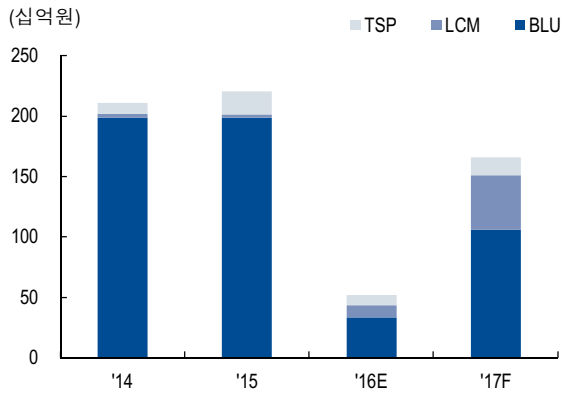
자료: 세광테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디스플레이 장비(세광테크 포함) 분기별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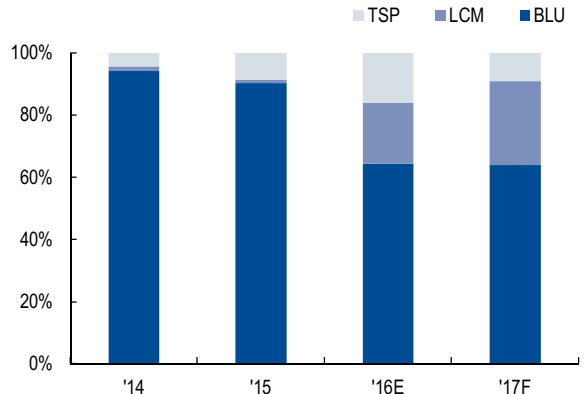
자료: 세광테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디스플레이 제품별 매출 추이: 2017년 BLU, LCM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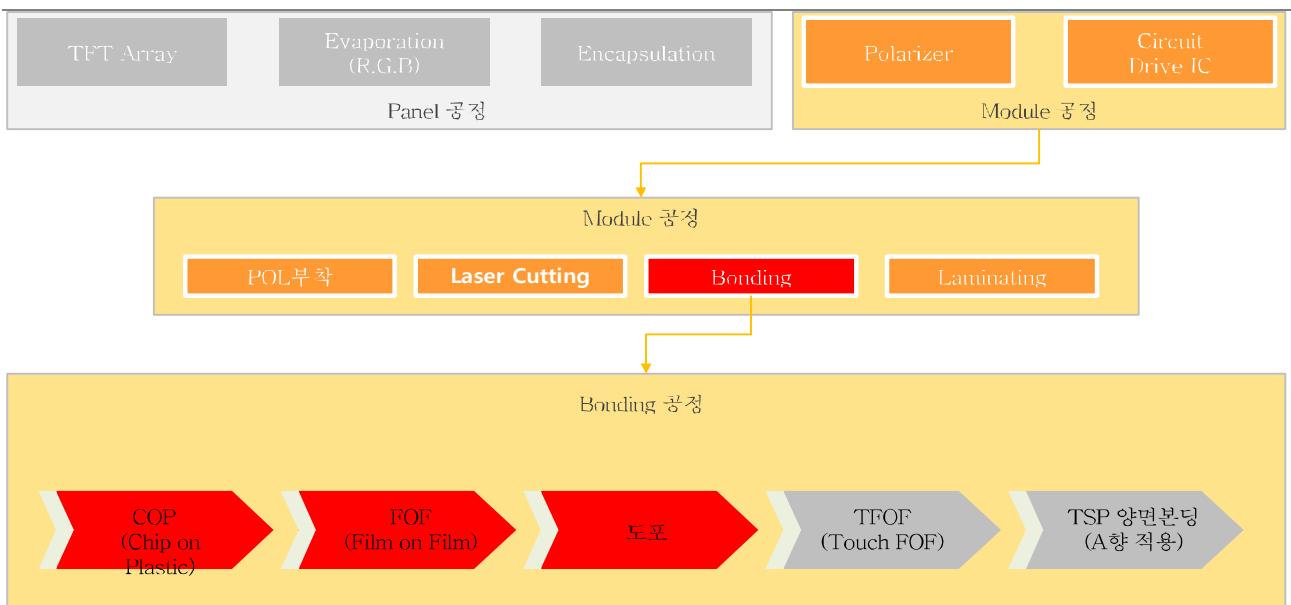
자료: 파인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디스플레이 제품별 매출 비중: BLU, LCM 비중 확대



자료: 파인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AMOLED 제조 공정



자료: 파인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20일 기준)

- 투자 의견 분포

Buy	Hold	Sell
75.0%	25.0%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 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파인텍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 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